

# 농촌지역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또래관계 친밀감 경험에 관한 질적 분석

김건숙(金建淑)\*

최은미(崔銀美)\*\*

이호준(李鎬俊)\*\*\*

## 논문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농촌지역 다문화가정 청소년이 또래관계 친밀감을 어떻게 경험하는가를 탐색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합의적 질적연구법(CQR)으로 농촌지역 중·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다문화가정 청소년 14명을 심층면접하고 그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방해나 어려움, 어려움의 극복, 긍정 경험, 친밀감의 의미, 필요한 도움 5개영역과 35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농촌지역 다문화가정 청소년은 친밀한 또래관계를 방해하는 요인인 외모 차이, 소수자로서 소외감 등 어려움을 극복하고 의미 있는 경험을 하였으며, 이들이 인식하는 또래관계 친밀감의 의미는 함께함, 잦은 접촉, 도와줌, 말이 통함, 편안함, 위로 제공, 자기를 드러냄, 믿고 의지함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는 함께 할 기회가 많은 농촌지역의 소규모 공동체 문화가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친밀한 또래관계 형성에 도움을 주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를 바탕으로 농촌지역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학교적응을 돕기 위한 교육 및 상담개입 전략에 대한 제언을 하였다.

주요어 : 다문화가정 청소년, 또래관계 친밀감, 질적 연구, 학교적응

\* 제1저자, 전주대학교 박사과정 수료

\*\* 전주대학교 박사과정 수료

\*\*\* 교신저자, 전주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교수

##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 사회에 다문화가정이 늘어나면서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전체 인구 중에 청소년 인구가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사회에 점차 다문화 인구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국내 출생 자녀와 중도 입국 자녀를 포함하는 국제결혼 자녀와 외국인 가정 자녀를 합한 다문화 가정 청소년은 2013년 55,780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청소년 대비 0.86%에 해당한다. 이것은 2009년 0.35%였음을 감안할 때 최근 5년 동안 꾸준히 증가하였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전체 다문화 가정 학생 중에서 초등학생의 비율이 여전히 높은 것이 사실이지만, 중·고등학생의 비율 또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교육부, 2013).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증가와 함께 이들이 학업부진이나 정체성 혼란 및 집단따돌림으로 인한 정서적 충격 등으로 학교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조영달, 2006), 학교·사회 적응곤란으로 향후 사회문제로 대두될 수 있다는 우려(보건복지부, 2008)가 대두되고 있다. 그동안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학교적응과 관련된 연구들이 다수 이루어진 것도 이런 배경과 무관하지 않다(김희경, 2012; 박순희, 2009; 임선모, 2012; 한정애, 2010).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학교적응과 관련된 요인은 다문화 특성 변인(어머니의 한국어 수준, 외모 차이 지각, 차별 경험 등), 개인적 변인(자아개념, 자아정체감 등), 가족 변인(가족 의사소통, 부모 양육태도 등), 사회 변인(또래관계, 사회적지지, 문화적응스트레스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김희경, 2011), 그중에서도 또래관계 요인이 학교적응에 중요함을 지적하는 연구들이 이어지고 있다(박순희, 2009; 안은미, 2007; 한정애, 2010). 이것은 청소년기가 가정보다 또래집단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시기라는 것과 관련이 있다. 한정애(2010)는 외모의 차이, 외국인 부모, 친밀감의 한계 등으로 교우관계에서의 따돌림 경험이 학습 격차나 언어 문제, 어려운 가정환경 등과 함께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교적응을 어렵게 한다고 하였다. 이와 함께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편견이나 인식 그리고 또래관계에서 소외가 학교적응에 방해 요소로 작용한다고 하였다. 중도 입국한 고등학교 다문화가정 학생을 대상으로 질적 연구를 수행한 우현정(2013)의 연구에서도 다문화가정 청소년은 또래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소외감'을 중심현상으로 경험한다고 하였다. 즉, 중도 입국한 다문화가정 청소년은 한국인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할까봐 두려워하여 또래집단으로 진입하지 못하고 주변을 배회하거나 친구들 앞에서 위축되고, 심지어 열등감으로 움츠러들 수 있으며, 일상을 공유할 상대가 부재할 경우 강한 외로움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문화상담 현장전문가들 또한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경우 외모, 언어, 경제적 문제 등으로 차별을 경험하며 심각한 경우에는 따돌림을 당하기도 한다고 언급하였다(양미진 외, 2012).

이처럼 다문화가정 청소년이 학교적응을 하는데 친밀한 또래관계는 학교적응을 위한 중요한

변인 중 하나임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과 건강한 친밀감을 맺을 수 있는 능력은 자기 발달의 핵심인데, 청소년기의 친밀감을 맺는 주요 대상은 또래 집단이다(Erikson, 1968). 청소년기에 또래관계와 맺는 친밀감은 개성과 함께 청소년기 성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청소년 중기가 되면, 청소년은 자신에 대한 관심뿐만 아니라 친구와 관계를 맺는 것에 관심을 가진다. 즉, 이들은 자신의 개성을 발달시킴과 함께 타인인 친구의 욕구를 수용하면서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Shulman & Knafo, 1997). 또래와 친밀한 우정 관계를 맺은 청소년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보다 우울을 적게 경험하고(Prinstein et al., 2005) 상호의존적인 우정 관계를 맺은 청소년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보다 우울을 적게 느끼는 경향이 있으며(Shulman & Laursen, 2002), 친구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는 능력도 높게 나타난다(Shulman et al., 1997; Selfhout et al., 2009). Sternberg(1986)는 친밀감이 가깝고 편하게 느낌, 서로를 잘 이해함, 함께 공유함, 원활한 의사소통, 긍정적인 지지 등을 의미한다고 했고, Buhrmester와 Furman(1987)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 생각과 감정을 개방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Sullivan(1953)은 친밀감이란 진심, 신뢰, 감정적 지지 등을 포함한 것으로, 단순한 개인 간의 자기 개방이 아니라 상호 간의 배려와 민감성 그리고 상호간의 공유와 자기개방에 근거한다고 하였고, 그를 지지한 여러 연구에서 청소년기의 친밀감은 어린 아이들이 부모에게 느끼는 애정적 형태의 친밀감과 다른 평등한 관계의 상호작용에 기반한 친밀감(Youniss, 1980; Youniss & Smollar, 1985; Buhrmester & Furman, 1987)이라고 언급한다. Reis와 Shaver(1988)은 친밀감 과정모델(The model of intimacy process)에서 자기노출이 친밀감 형성과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 모델을 바탕으로 많은 연구들은 자기노출을 많이 할수록 친밀감이 높아진다고(윤미혜, 신희천, 2009; 최지영, 최연실, 2010; Laurenceau, Barrett, & Rovine, 2005; Mitchell et al., 2008)보고하였다. 안경숙(2001)은 친밀한 친구관계란 두 사람이 자발적으로 서로 애정적인 호감과 관심을 가지고 상호의존하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상호작용으로서 친구관계 유지는 일상생활의 공유, 감정의 자유로운 표현, 중대한 개인문제 논의, 사생활의 비밀토로, 하찮은 갈등의 해소, 개인의 자아감 충족 및 확대시키는 기회제공, 상호신뢰, 물리적 도움 지원 등을 바탕으로 한다고 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또래관계에서 친밀감을 형성하는 것은 청소년에게 사회적 지지의 자원으로 작용할 수 있고, 동시에 친밀감이라는 정서적 경험을 통해 학교적응이 용이해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더구나 이중문화를 경험하고 있고, 소수 집단으로서 소외감을 겪을 수 있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에게 또래관계 친밀감은 더욱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즉, 친밀한 또래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다문화가정 청소년이 학교적응 과정에서 경험하는 차별경험이나 집단따돌림, 소외감 등을 극복할 수 있는 사회적 지지의 자원으로 기능할 수 있는 것이다.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과 관련된 선행연구는 실태조사나 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밝히는 양적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지만, 최근 교사나 다문화 상담 전문가 등(하혜숙, 2011; 양미

진 등, 2012) 주변을 대상으로 하거나 다문화가정 청소년을 직접 대상으로 하는 경험 연구도 수행되고 있다(정지윤, 문성호, 2011; 최호선 2011, 한정애, 2010; 황정은, 이훈희, 2013). 정지윤, 문성호(2011)는 내러티브 연구를 통해 다문화가정 청소년은 학교를 제한성을 가진 공간으로 인식하기도 하지만, 자신을 이중 언어와 다양성이라는 많은 강점을 가진 존재로 인식하고 있음을 제시하였다. 황정은, 이훈희(2011)는 Q방법론을 이용하여 또래관계와 학습 부분에서의 적응유형을 구분하고 유형에 따른 사회적 지원 체계를 제안하였다.

한편 다문화가정 청소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국내 출생 자녀, 중도입국 자녀 등 다문화구성 형태에 따라 생태학적 특성, 문화적 경험, 교육환경 등이 다르기 때문에 부적응 요인이 다를 수 있음을 고려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중도입국한 다문화가정 청소년을 대상으로 중도입국 전과 후의 학교생활적응을 포함한 심리·사회적 적응이나 문화적 적응을 다루는 연구들이 있는데(김정민, 2014; 우현정, 2013; 양미진 외, 2012; 한은진, 2013), 이러한 연구들은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보편적 특성이 아닌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특성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렇듯 다양한 입장에 처해 있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을 이해하고 이들에게 맞는 교육이나 상담적 개입을 제공하기 위해 농촌, 도서, 도시 등 지역적 환경에 따른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대해 탐색할 필요가 있다. 농촌지역은 국제결혼 이주여성 이 많은 관계로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비율이 높은 편이다. 그리고 농촌지역 학교는 도시 학교에 비해 전체 학생 수가 극히 적기 때문에 초등학교 때 형성된 또래 관계가 중·고등학교까지 계속 이어지는 특성이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농촌지역 다문화가정 청소년만이 경험하는 독특한 학교생활 및 또래관계 경험이 있을 수 있다.

농촌지역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기존 연구에서는 학교생활적응과 관련된 변인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들은 학교생활적응과 다문화적 특성변인, 개인 심리내적 변인과 함께 사회적 변인의 관계를 밝혔는데, 사회적 변인과 관련하여 친구지지와 또래수용 정도가 높을수록 학교적응력이 높다고 보고하였다(안은미, 2007; 양순미, 2007). 정행준(2011)은 농촌 지역 다문화가정 초등학생 4, 5, 6학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이들은 자신의 외모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특히 생김새와 피부색 차이로 또래관계에서 놀림을 경험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이것은 일반적인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연구에서도 보이는 요인으로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있어서 또래관계 요인이 중요한 변인(박순희, 2009; 한정애, 2010)중에 하나임을 시사한다. 이처럼 농촌지역 다문화가정 청소년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주로 학교생활적응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또래관계 경험에 대한 심층적인 탐색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연구참여자를 국내에서 출생한 농촌지역 다문화가정 청소년으로 설정하고, 이들을 직접 만나 능동적인 주체로서 학교적응의 중요한 요인인 또래관계 친밀감을 어떻게 경

험하고,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가에 대해 탐색하고자 하였다. 농촌지역 다문화가정 청소년을 연구대상으로 삼은 것은 농촌지역 다문화가정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현실에 대한 고려와 함께 농촌이라는 지역적 특성이 청소년기의 또래관계 친밀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혀보고자 하는 의도를 포함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한 학년의 학생 수가 20명 내외인 전형적인 농촌지역 소규모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가정 청소년을 연구참여자로 선정함으로써 이러한 환경적 특성으로 인한 고유한 특성을 밝히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농촌지역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또래관계 친밀감 경험을 심층적으로 이해하여 기술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들의 학교적응을 돕기 위한 교육 및 상담개입 전략을 마련하는데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연구자가 연구 참여자에게 특정 경험의 중요한 부분을 재구성하도록 하고, 탐구를 제한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Spradley(1979)가 명명한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상위연구 질문(grand-tour Question)'을 사용하여(Creswell, 2007; Seidman, 2006)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지역 다문화가정 청소년은 또래관계 친밀감을 어떻게 경험하는가?

둘째, 농촌지역 다문화가정 청소년에게 또래관계 친밀감의 의미는 무엇인가?

셋째, 농촌지역 다문화가정 청소년이 또래관계 친밀감을 발전시키는데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도움은 무엇인가?

## II. 연구 방법

본 연구는 '합의에 의한 질적연구법(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CQR, 이하 CQR)'으로 농촌지역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또래관계 친밀감에 관한 경험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CQR은 Strauss와 Corbin(1990)의 근거이론과 Elliot(1989)의 집중적 과정분석을 결합하여 Hill 등(Hill, Thompson & Williams, 1997; Hill, et al., 2005)이 개발한 질적 분석 방법으로서, 분석팀이 경험 자료를 분석하고 논의를 거쳐 합의에 이르는 절차를 따른다. 이 방법은 기존의 질적연구 방법의 객관성 결여와 반복성, 엄격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여러 명의 연구자가 참여하여 합의에 도달하는 체계적인 과정을 거친다(지승희, 2000).

### 1. 참여자

본 연구의 참여자는 국내에서 출생하여 전라북도 소재 농촌지역 중·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

는 다문화가정 청소년 14명(남자 9, 여자 5)으로 눈덩이 표집(snowball sampling)을 이용하여 선정되었다. 이들은 행정구역상 농촌 지역 읍·면에 거주하고 있으며 인근 중·고등학교(중 12명, 고 2명)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이다. 참여자들이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학년 당 학생 수는 적게는 8명 많게는 20명 정도로 한 반으로 편성되어 있다. 이들은 도시 학생들에 비해 같은 학년의 또래 친구 자체가 적기 때문에 일반가정과 다문화가정을 불문하고 또래관계를 형성해야 하는 환경에 처해 있었다. 참여자들의 부모 대부분은 농촌 지역 읍·면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모의 국적이 같은 경우는 흔하지 않았다. 연구 참여자 정보는 <표 1>과 같다.

<표 1> 연구 참여자 정보

참여자	성별	연령	학교 급	지역	다문화가정 학생 수 / 전체 학년 학생 수	부 국적	모 국적
1	여	17	고등학교	J시 C면	3/20	한국	일본
2	여	17	고등학교	J시 C면	3/20	한국	일본
3	남	13	중학교	J시 I면	2/13	한국	필리핀
4	남	14	중학교	J시 S면	1 /8	한국	일본
5	남	13	중학교	K군 K면	2/17	한국	필리핀
6	남	13	중학교	J시 I면	2/13	일본	한국
7	남	13	중학교	M군 M읍	2/19	한국	필리핀
8	여	13	중학교	M군 M읍	2/19	한국	일본
9	남	15	중학교	S군 B면	2/20	한국	중국
10	남	15	중학교	S군 B면	2/20	한국	필리핀
11	남	14	중학교	S군 B면	2/12	한국	중국
12	여	14	중학교	S군 B면	2/12	한국	필리핀
13	여	15	중학교	S군 K면	1/18	한국	필리핀
14	남	14	중학교	S군 K면	1/12	한국	중국

## 2. 분석팀

분석팀은 질적 연구 논문을 쓴 경험이 있는 상담심리학과 교수 1명과 상담심리학과 박사과정 수료자 2명으로 구성되었으며, 박사과정 수료자 2명은 다수의 질적연구 워크샵에 참여하여 면접과 질적 자료 분석에 대한 훈련을 받았고, CQR로 질적 연구를 한 경험이 있다. 분석과정에서 분석팀은 수차례 회의를 거친 후 5개 사례를 공동 분석하여 연구자 간 자료 분석의 틀을 합의하였다. 감수자는 여러 차례 질적 연구 경험이 있고 상담심리학 분야의 자격증을 가진 전문가로 분석팀이 합의한 영역 및 중심개념 코딩, 교차분석 결과를 개별적으로 검토한 후 총 3회에 걸쳐 피드백을 주었다.

### 3. 자료 수집

#### 1) 반구조화된 면접질문지

면접 질문지는 반구조화된 개방형 질문지로 연구 참여자가 연구 주제 범위 안에서 자신의 경험을 재구성할 수 있도록(Seidman, 2006) 3명의 연구자가 개발하여 사용하였다. 면접 질문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박사과정을 수료한 2명에게 피드백을 받았고, 2회의 예비면접 과정과 문헌 연구를 통해 질문 문항을 수정·보완하여 최종 확정하였다.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또래관계 친밀감 경험 연구를 위한 구체적인 면접 질문 내용은 <표 2>와 같다.

<표 2> 면접 질문내용

질 문 내 용
1. 또래관계란 무엇인가요?
2. 또래관계는 어떤지에 대해 말해주세요.
3. 또래관계에서 친밀하다고 할 때는 무엇을 말하나요?
4. 또래 친구와 어떻게 친해지나요?
5. 또래 친구와 친해지는데 방해나 어려움은 무엇인가요?
6. 또래 친구와 친해지는데 방해나 어려움은 어떻게 극복했나요?
7. 또래 친구가 있어서 의미 있고 좋았던 경험은 무엇인가요?
8. 친밀한 또래 친구가 있다는 것은 자신에게 어떻게 도움이 되나요?
9. 친밀한 또래 친구로 인해 자신에게 생긴 변화는 무엇인가요?
10. 또래 친구와 친해지는데 학교나 지역사회로부터 필요한 도움은 무엇인가요?

#### 2) 면접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을 위해 반구조화된 면접 질문지를 사용하였으며, 면접은 분석팀 중 박사과정 수료자 2명이 담당하였다. 2013년 7월 예비 면접을 실시한 후 본 면접은 2013년 11월부터 2014년 1월 초순까지 이루어졌고, 참여자와 심층 면접을 진행하면서 더 이상 새로운 정보가 발견되지 않는 이론적 포화로 판단되는 시점에서 면접을 종결하였다. 면접 내용은 참여자의 부모님과 참여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 녹음되었고, 녹음된 파일은 분석팀 중 2명의 연구자가 면접 직후 직접 축어록으로 작성하였으며, 축어록을 참여자에게 직접 보여주거나 전화로 피드백을 받아 면접에서 확실하지 않았거나 불일치했던 내용을 수정·보완하였다. 이와 함께 참여자들의 담임교

사, 교과교사 등과의 직접 면접 또는 전화·서면 인터뷰를 통해 이들의 또래관계 경험에 대한 자료를 얻는 과정을 거쳤다. 면접 장소는 학교의 상담실이나 교실 등 참여자가 편안함을 느끼며 면접내용의 비밀이 보장될 수 있는 곳에서 이루어졌다.

#### 4. 자료 분석

자료 분석은 영역코딩, 중심개념 코딩, 교차분석의 3단계 절차를 거쳤다. 영역코딩 단계에서는 분석팀이 전사된 자료를 여러 차례에 걸쳐 함께 읽고 토의하였으며, 주제별로 영역부호화 과정을 거쳤다. 처음 5개의 사례를 함께 읽고 합의하여 영역을 도출하고 나머지는 각자 사례를 읽고 영역을 구성한 다음, 다시 모여 토의를 거쳐 합의하는 과정을 반복하였고, 그 결과 최종적으로 5개 영역이 도출되었다. 영역 코딩 과정에서 친밀감의 시도, 의미 있는 경험, 삶에 영향 등도 영역으로 논의되었는데, 친밀감의 시도 영역은 어려움의 극복 영역으로, 의미 있는 경험과 삶의 영향은 긍정 경험 영역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최종 합의에 도달하였다.

중심개념 코딩 단계에서는 분석자의 추론을 배제하고 참여자의 관점과 사례의 전체 맥락을 고려하여 영역의 내용을 간결하게 요약하였다. 각자 요약 반응을 구성한 후 합의팀이 함께 모여 합의에 도달할 때까지 논의하였다. 감수자는 분석팀에 의해 합의된 영역과 요약 반응이 코딩이 된 자료에 근거하여 도출된 것인지를 확인하였고, 감수자의 피드백에 대해 분석팀은 다시 논의하고 합의하는 과정을 거쳤다.

교차분석 단계에서는 모든 사례의 영역 및 요약 반응이 확정된 후, 사례들 간의 유사성에 대해 논의하였고, 각 영역 내의 요약반응들을 범주화하였다. 이 과정에서 의견이 다를 경우, 분석팀은 다시 논의하고 합의하였으며, 연구자들 간의 일치율은 95%를 보였다. 교차분석 결과 총 35개의 범주가 도출되었으며, 결정된 사례에서 나타나는 빈도를 표시하여 감수자의 피드백을 받았다. 친밀감의 의미 영역의 중심개념 코딩 단계에서는 자기노출, 공유함, 원활한 의사소통, 신뢰 등의 범주가 논의되었는데, 참여자의 생생한 언어를 드러낼 수 있는 개념으로 범주화하는 것으로 최종 합의가 이루어져 자기를 드러냄, 함께함, 말이 통함 등으로 중심 개념을 도출하였다. 다른 영역에서도 이와 같은 합의 절차를 거쳤다.

사례에 대한 빈도의 기준은 Hill 등(1997)의 기준을 사용하였으며, 표집의 대표성을 결정하기 위해 모든 사례에 적용되는 경우 '일반적(general)', 반 또는 그 이상에 적용되는 경우는 '전형적(typical)', 2, 3 사례 또는 반 이하에 적용되는 경우는 '드문(variant)'으로 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 사례를 제외한 13사례와 모든 사례에 적용되는 경우는 '일반적(general)', 7~12사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형적(typical)', 1~6 사례는 '드문(variant)'으로 하였다.



### III. 연구 결과

합의적 질적연구법으로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또래관계 친밀감 경험을 알아본 결과, 최종적으로 5개 영역의 36개 범주로 분류되었으며,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연구 참여자들의 경험을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면접내용을 부분적으로 인용하여 친밀감 의미, 방해나 어려움, 어려움의 극복, 긍정경험, 필요한 도움 5개 영역별로 기술하고자 한다.

#### 1. 방해나 어려움

방해나 어려움 영역에서는 심리적 위축(전형적, 10사례), 다툼(전형적, 10사례), 소수자로서 소외감(전형적, 7사례), 놀림이나 괴롭힘(전형적, 7사례), 외국인 엄마(드문, 5사례), 편견이나 차별 경험(드문, 4사례), 접촉 시간 부족(드문, 4사례) 등 7개 범주가 도출되었다. 성격적인 측면의 심리적 위축, 의견 충돌로 인한 다툼, 놀림이나 괴롭힘, 접촉 시간의 부족 등은 일반가정 청소년에게서도 볼 수 있는 어려움이라고 할 수 있으나, 소수자로서의 소외감이나 편견과 차별 경험, 외국인 엄마로 인해 겪는 어려움은 다문화가정 청소년이기 때문에 나타난 반응이라 볼 수 있다. 또한 심리적 위축, 놀림이나 괴롭힘 영역에서도 다문화적 특성으로 인해 경험하는 반응들이 나타났다. 농촌지역 다문화가정 청소년은 외모 차이, 외국인 엄마, 소수자로서 소외감, 차별이나 편견, 위축감 등 일반 다문화가정 청소년이 겪는 방해나 어려움을 경험(양미진, 2012; 우현정, 2013; 정행준, 2011; 한정애, 2010)하였다. 다만, 다문화특성으로 인한 심리적 위축감, 외국인 엄마, 편견이나 차별 경험은 방해나 어려움으로 나타났지만 주로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때 경험(참여자1, 참여자 2, 참여자 3, 참여자 4)하였다고 반응하였다.

<표 3>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또래관계 친밀감 경험에 관한 교차분석 결과

영역	범주	응답빈도
방해나 어려움	심리적 위축	전형적(10)
	다툼(의견 충돌)	전형적(10)
	소수자로서 소외감	전형적(7)
	놀림이나 괴롭힘	전형적(7)
	외국인 엄마	드문(5)
	편견이나 차별 경험	드문(4)
	접촉 시간 부족	드문(4)

영역	범주	응답빈도
어려움의 극복	먼저 다가감	전형적(11)
	긍정적 재해석	전형적(10)
	자주 함께함	전형적(9)
	위로나 지지(친구, 교사)	전형적(8)
	자기 수용	전형적(8)
	관심을 기울임	전형적(7)
	강점에 주의를 기울임	전형적(7)
	공동체 문화	전형적(7)
긍정 경험	심리적 안정(위로/지지)	일반적(14)
	경험 공유	전형적(12)
	성격의 변화(사회적 성숙)	전형적(10)
	즐거움(재미)	전형적(10)
	도움이 됨	전형적(8)
	심리적 성숙	드문(6)
	적극적 관심	드문(2)
친밀감의 의미	함께함	일반적(14)
	짚은 접촉	전형적(10)
	도외증	전형적(9)
	말이 통함	전형적(7)
	편안함	전형적(7)
	위로 제공	전형적(7)
	자기를 드러냄	드문(6)
	믿고 의지함	드문(3)
필요한 도움	친구나 교사 지지	전형적(11)
	인식의 변화	전형적(8)
	교육이나 상담이 필요함	전형적(8)
	접촉의 기회 제공	드문(5)
	당당한 태도 필요	드문(1)

### 1) 심리적 위축

소심함 등의 개인 심리적인 특성으로 또래 친구와 친밀하게 지내는 데 어려움을 나타내기도 하였지만, 외국인 엄마, 외모 등 다문화적 특성이 원인이 되어 심리적 위축감을 경험하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친구들이 좀 기가 세 보이면 힘들어요.”(참여자 2)

“엄마가 학교에 자주 올 때 이상하게 쳐다볼까 걱정했었는데 ……”(참여자 3)

“엄마 발음이 틀린 게 있어서 엄마랑 인사할 때 신경이 쓰여요. 어렸을 때는 안 그랬는데, 초등학교 4, 5학년 때부터 신경이 쓰이더라고요.”(참여자 4)

## 2) 다툼(의견 충돌)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소소한 다툼이나 의견 충돌이 또래 친구와 친해지는 데 겪는 어려움이라고 반응하였다.

“자기 것만 하려고 하니까 의견충돌이 있어요. 나는 합쳐서 하려고 하는데, 미술 시간에 모둠 끼리 해서 그림 그리는데 혼자서 색칠하고 우리는 간단한 것만 하고 하니까, 다른 모둠 애들이 ▽▽가 다한다고 뭐라고 했어요.”(참여자 9)

“☆☆이는 다문화가정 자녀이기 때문이기 보다 중학교 여학생들 사이에 있을 수 있는 시기, 질투 이런 문제들로 친구들과 갈등이 있었어요. 친한 친구가 위로해주고 담임선생님이 중간에서 역할을 해 잘 해결됐어요.”(참여자 13의 국어 담당 교사)

## 3) 소수자로서 소외감

자신이 속한 집단과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고 인식되거나 제외된다고 느껴질 때 소수자로서 소외감을 호소하였다.

“중학교 때 역사 시간에 일본 욕을 하면 듣고 있으면 힘들었어요. 국어 시간에 국어 선생님이 일제 강점기 때 시랑 읽으면 좀 그랬어요. 친구가 그것을 가지고 심한 말을 해서 운적도 있어요. 선생님이 나중에 교무실로 따로 불러서 미안하다고 그런 적도 있어요.”(참여자 2)

“그냥 좀 엄마가 다른 나라 사람이라는 생각요. 한국 문화가 어렵기도 하고, 영어도 어려워요.”(참여자 5)

“저는 아닌데요, 아무것도 안했는데, 우리나라 사람 아니라고 놀리고 그러면 좀 놀래기는 해요.”(참여자 9)

## 4) 놀림이나 괴롭힘

또래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신체적 놀림이나 폭력 등의 괴롭힘 외에도 문화적 배경이나 외모의 차이로 인한 놀림이나 괴롭힘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때 친구들이 저한테 함부로 하면 안 된다고, 일본 순사가 오면 우리 잡아간다고 하면서 저를 놀렸어요. 그때는 수줍음을 많이 타 나를 놀리는 것 같아 힘들었어요.”(참여자 1)

“그냥 돼지, 그런 거 계속 부르고.”(참여자 6)

“표시 만나니까 좋아요. 표시 나면 고생할 거 같아요. 엄마가 같은 필리핀 사람들하고 자주 모이는데, 그런 것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이 많대요.”(참여자 13)

## 5) 외국인 엄마

엄마가 외국인이라는 사실이 또래 친구와 어울리는데 어려움으로 작용한다고 반응하였다. 참여자들은 또래 친구에게 이것에 대해 말하기를 불편해 했고, 당당하게 드러내는 것을 원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엄마가 외국인이라서 좀 학교에 오면 창피했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 쯤. 마음이 좀 그랬어요. 올 때가 몇 번 있었는데.”(참여자 3)

“엄마가 외국인이라는 것을 아는 친구들이 몇 명 있어요. 알고 있지만, 친구들이 일부러 말을 하지는 않아요.”(참여자 4)

## 6) 편견이나 차별 경험

다문화적 특성에 대한 주변의 부정적 인식과 차별 경험은 심리적 위축을 가져와 또래 친구와 친해지는 어려움으로 작용한다고 반응하였다.

“사실, 제가 엄마 국적도 있어요. 이중 국적이거든요. 한국 국적, 일본 국적. 안 좋은 인식이 있어요. 초등학교 때 남자 애들이 상처되는 말을 해서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요사이엔 엄마가 일본인이라는 것을 말하지 않고 있어요. 친구가 부담스러워 할까봐서요.”(참여자 2)

“제가 처음에 유치원 다닐 때, 그 때 유치원에서 슬렸는데(왕따 경험),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들이 잘해줘서 이제는 나는 외톨이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참여자 3)

“엄마 친구 자식들은 머리도 나쁘다는 인식도 하고 놀림감이 된다는 말은 들었어요.”(참여자 13)

## 7) 접촉 시간 부족

참여자들은 또래 친구와 접촉을 자주하는 것이 친밀하다고 여겼고, 접촉 시간의 부족이 친밀함을 방해한다고 반응하였다.

“친구와 싸울 때 또는 자주 만나지 않을 때요. 자주 만나야 더욱더 친해지기 때문이에요. 방학 때 같은 때요.”(참여자 5)

## 2. 어려움의 극복

어려움의 극복 영역에서는 먼저 다가감(전형적, 11사례), 긍정적 재해석(10사례), 자주 함께함(전형적, 9사례), 위로나 지지(전형적, 8사례), 자기 수용(전형적, 8사례), 관심을 기울임(전형적, 7사례), 강점에 주의를 기울임(전형적, 7사례), 소규모 공동체 문화(전형적, 7사례)등 8개 범주가 도출되었다. 참여자들은 먼저 다가가는 적극성, 긍정적 재해석과 강점에 주의를 기울이는 긍정성, 자기 수용 등 개인 내적 자원을 활용하여 또래관계 친밀감을 방해하는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것으로 반응하였다. 이와 함께 어려움의 극복 영역에서는 청소년의 수가 적은 소규모 농촌지역이라는 지역적 환경이 다문화가정 청소년이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참여자가 재학 중인 소규모 농촌지역 학교들은 한 학년 전체 학생 수가 많게는 20명에서 적게는 8명 정도이기 때문에 아침 일찍부터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버스를 타고 등교해서 방과후 활동까지 모든 교육과정과 행사에 다 같이 참여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이로 인해 이들은 친구와 같이 함께 생활하는 시간 자체가 많고, 친구나 교사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다. 이러한 지역적·교육적 환경의 특성으로 인해 도시지역 청소년에 비해 또래들과 더 많은 시간과 공간을 공유할 수 있는 여건은 친밀한 또래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된 것으로 보인다. 어려움 극복 영역의 먼저 다가감, 자주 함께함, 친구, 교사의 위로나 지지의 제공, 공동체 문화 등의 범주는 도시지역 청소년보다 시·공간적으로 접촉이 잦은 농촌지역의 소규모 공동체라는 지역적 환경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 1) 먼저 다가감

먼저 다가가는 적극성으로 또래 친구와 친밀감을 시도하고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내가 친구들에게 말을 걸거나 친해지는 것 같아요.”(참여자 6).

“네. □□한테는 내가 말로 그냥 잘 지내자고 했어요..”(참여자 10).

### 2) 긍정적 재해석

방해나 어려움에 초점을 맞추어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 내적 자원을 활용하여 자신이 처한 상황을 긍정적으로 재해석함으로써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엄마는 이제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1년 동안 계속 생각했어요.”(참여자 3)

“어차피 적극적으로 해도 뭐라고 할 사람도 없고 해서 알아도 상관없다고 생각했어요. 재미있게

만 지내면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참여자 4)

“나를 쳐다보는 친구들도 있지만 신경 안 써요. 초딩 때는 쳐다보면 기분이 나빴지만 지금은 쳐다보든 말든 상관없어요. 신경을 덜 쓰게 되었고, 말도 많이 하고, 소리도 크니까.”(참여자 7)

### 3) 자주 함께함

자주 함께하는 것 자체가 또래 친구와 친하게 지낼 수 있는 방법의 하나이고, 어려움을 극복하는 수단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구들이 하고 있는 것 보고 재미있을 것 같으면 같이 하고, 물어보면 알려주고, 놀고 있을 때 같이 참여해요. 처음부터 같이 놀기도 하고요.”(참여자 9)

“장난만 치는 게 아니라 할 것이 없을 때는 산에도 가요. 놀래켜 주구, 도망치기도 하고, 주말마다 같이 다녀요.”(참여자 7)

“여기 아이들은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버스도 같이 타고 다니고, 학교에서 거의 늦게까지 방과후 활동을 하니 같이 지내는 시간이 많아요. 학원을 다니기에는 (도시까지) 거리도 멀고 경제적으로도 넉넉지 않고요. 그래서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같이 잘 지내요. \*\*이는 애들하고 잘 지내요. 인기 많아요(웃음).”(참여자 3의 담임교사)

### 4) 위로나 지지(친구, 교사)

친구가 자신의 처지를 수용해주거나 위안을 준 것과 교사가 개입하여 친구와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 격려나 지지를 제공한 것이 또래관계에서 생긴 갈등이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반응하였다.

“친한 친구가 니가 부럽다고 했어요. 선생님들도 두 문화를 가진 것은 장점이라고 말했어요. 내가 하고 싶은 일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요. 지금 세상은 넓어지고 있고, 위안을 삼고 있어요.”(참여자 2)

“애들이 우리 엄마를 보고 이상하게 보지 않고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좋았어요.”(참여자 3)

“(선생님이)상담도 해주고, 친구들하고 갈등을 깔끔하게 처리해주었어요. 나를 괴롭힌 친구들에게는 별점을 줄 수도 있었지만, 그 애들에게 쿨하게 용서해주시기로 하고 다시는 저를 괴롭히지 않겠다고 약속을 받아내고, 저한테는 너무 크게 신경 쓰지 말라고 말해주었어요. 그렇게 한 뒤 서로 그 일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고 일이 잘 마무리가 되었어요..”(참여자 13)

### 5) 자기 수용

자기가 행동한 결과나 처한 상황을 받아들이는 태도를 취하는 것으로 또래 친구와 친밀하게 지내는데 생기는 방해나 어려움을 극복한다고 반응하였다. 다문화가정 청소년이기 때문에 겪을

수 있는 외모 차이나 엄마가 외국인이라는 다문화적 특성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으로 어려움을 극복하는 노력을 보였다.

“나를 쳐다보는 친구들도 있지만 신경 안 써요. 초딩 때는 쳐다보면 기분이 나빴지만 지금은 쳐다보든 말든 상관없어요. 신경을 덜 쓰게 되었고, 말도 많이 하고, 소리도 크니까.”(참여자 7)

“그냥 엄마가 일본인이어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요. 일본 것도, 여기 것도.”(참여자 8)

## 6) 관심을 기울임

또래 친구의 관심사에 주의를 기울임으로서 공감대를 형성을 통해 친밀감을 시도하고 어려움을 극복하려 하였다.

“그 친구가 다른 친구와 하고 있는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그 친구 관심사를 알게 돼요. 나와 같은 관심사가 있으면 물어보면서 친해져요.”(참여자 1)

“음..., 친해지고 싶으면,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친해지기 위해 노력하고, 이름도 불러주고.”(참여자 6)

## 7) 강점에 주의를 기울임

자신의 강점과 자신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다른 것에 주의를 기울임으로서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니요. 상관없다 생각했어요. 내가 잘하고 그러면 애들이 부러워해요. 축구를 잘하거든요.”(참여자 10)

“그리고 차라리 다른 거에 신경 쓰기로 했어요. 예를 들면, 독서, 그림 같은 거요. 그 책의 내용이 머리에 남아, 인상 깊게 읽으면 머리에 많이 남아요.”(참여자 13)

## 8) 소규모 공동체 문화

농촌지역 소규모 공동체 문화는 유치원 때부터 초등학교를 거쳐 중학교에 이르기까지 구성원들의 변화가 적어서 또래관계에서 쉽게 친밀해지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소규모 학교의 가족적인 교육활동은 또래관계에서 생길 수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 결혼이주 여성이 직접 참여하는 농촌지역 소규모 단위 학교의 다문화교육은 도시지역 학교보다 놀이나 음식 만들기 등의 체험 활동이 용이하기 때문에 다문화가정 청소년이 자신의 문화적 배경을 또래들로부터 이해받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었고, 참여자 3의 경우에는 엄마가 직접

학교를 내방하여 다문화교육을 실시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었다.

“엄마가 학교에 오셔서 필리핀 요리를 하고 그랬어요. 엄마도 기분도 좋아졌고, 재미있다고 하셨어요. 다른 기회가 있으면 또 하고 싶다고 했어요.”(참여자 3)

“초등학교 때부터 친해져서 다른 애들하고 똑 같이 대해줘요.”(참여자 5)

“20명요. 우리반이 20명인데 다 친해요.”(참여자 9)

“시골학교 다니다 보니까 쪽 연결돼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참여자 13)

### 3. 긍정 경험

긍정 경험 영역에서는 심리적 안정(일반적, 14사례), 경험 공유(전형적, 12사례), 성격의 변화(전형적, 10사례), 즐거움(전형적, 10사례), 도움이 됨(전형적, 8사례), 심리적 성숙(드문, 6사례), 적극적 관심(드문, 2사례) 등 7개 범주가 도출되었다. 농촌지역 다문화가정 청소년은 또래 친구들과 시·공간적으로 함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고, 같이 함께함으로 인해 심리적 안정과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을 긍정적 경험으로 여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시·공간적으로 함께할 기회가 많은 농촌지역의 환경이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도움을 제공 받은 것 또한 긍정경험으로 여기고 있었는데, 참여자 3의 경우, 소수자인 자신에게 친구가 어려움이 있을 때 도움을 줄 것이라는 믿음을 긍정 경험으로 여기고 있었다. 참여자 3뿐만 아니라 많은 참여자(9사례)들이 친밀한 또래관계에서 도움 제공을 의미 있게 여기고 있었다. 이것은 다문화가정 청소년이 학습적인 부분이나 문화적, 경제적인 면에서 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음을 나타내고,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함을 드러낸 것이라 볼 수 있다.

#### 1) 심리적 안정(위로/지지)

참여자들은 또래 친구로 인해 위로나 지지를 받으며, 외로움을 느끼지 않고 마음이 편안함을 제공받는 긍정적인 경험을 하였다. 친밀한 또래 친구를 통해 심리적 안정을 얻는 경험이 모든 사례에서 나타났다.

“친구랑 있으면 머리가 맑아져요. 기분도 좋아지고, 머리도 잘 돌아가고, 친구랑 놀 때 몸이 덜 피로한 것 같아요.”(참여자 4)

“친구가 있으니까 체험학습 가서 같이 사먹을 수도 있고, 혼자 였다면 아무 표정 없이 쓸쓸할 거예요. 친구가 있어 외롭거나 쓸쓸하지 않아요.”(참여자 9)

“의지할 수 있고 외롭지 않고.”(참여자 11)



## 2) 경험 공유

친밀한 또래 친구와 같이하는 것 자체가 좋고 의미 있는 경험으로 나타났다.

“학교에서 밥도 같이 먹고, 같이 다니고, 토, 일요일에도 집에 있지 않고 만나고, 카톡도 자주 하고. 친구들과 모든 것을 같이하고 비밀을 함께 나누고 고민도 들어줘서 참 좋아요..”(참여자 8)

“학교에서 같이 현장체험학습 갈 때 도시락도 나눠먹고.”(참여자 12)

## 3) 성격의 변화(사회적 성숙)

친밀한 또래 친구는 다른 사람과 잘 지낼 수 있는 기술을 연마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이를 토대로 사회성이 높아지는 사회적 성숙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른 데 가서도 친구를 사귀고 싶고, 정이 깊어짐으로 의리가 생기는 것 같아요.”(참여자 5)

“친구들이 없었으면 성격이 험악했을 것 같아요.”(참여자 7)

“사교성이 좋아진 것 같아요.”(참여자 11)

## 4) 즐거움(재미)

친밀한 또래 친구로 인해 삶이 재미있고 즐겁게 변한 긍정적인 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즐겁고 재미있게 됐어요. 좀 더 즐거워지고 친구들과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카톡을 하느라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 시간이 많아 졌어요.”(참여자 8)

“친구가 없었다면 사는 게 재미가 없었을 같아요.”(참여자 13)

## 5) 도움이 됨

삶에서 갈등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 도움이 되는 긍정적 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친구들이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다 모여서 기부해 줄 수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 더 잘 살라고 격려해 줄 수 있을 거 같고, 좌절하지 말고 잘 살라고 말할 거 같아요. 믿음이 생겨요”(참여자 3)

“부모님과 갈등 때문에 힘들었을 때 전화로 도와주었어요. 힘이 되었어요.”(참여자 5)

“모르는 거 있을 때 서로 도와주고, 어려운 일 있을 때 같이 이겨낼 수 있어요.”(참여자 10)

## 6) 심리적 성숙

친밀한 또래 친구가 있어서 자기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와 긍정적 변화에 대한 시도를 통해 심리적 성숙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한테는 없는 것들을 보면서 나를 반성하기도 하고 닮아야지 하는 생각도 들어요.”(참여자 2)

“친구가 있어서 생각을 바꾸게 되고, 그럴 수 있지 뭐하고 다른 사람을 이해도 할 수 있어요.”(참여자 4)

“긍정적이 된 거요. 뭔가를 받아줘요. 서로서로. 기분이 좋아져요.”(참여자 9)

## 7) 적극적 관심

적극적 관심이 의미 있고 좋은 경험이었다는 반응을 보였다.

“부정적인 생각만하고 좌절할 수도 있는데 긍정적으로 할 수 있게 해요. 한 번은 친구와 대판 싸웠던 적인 있었는데, 내가 편지를 아주 길게 썼었어요. 근데 답이 없었는데, 그 친구가 동영상만 들어서 미안하다고 영상 편지를 썼어요. 친구가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미안하고 그런 나를 위해줘서 고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참여자 1)

## 4. 친밀감의 의미

친밀감의 의미 영역에서는 함께함(일반적, 모든 사례), 잦은 접촉(전형적, 10사례), 도와줌(전형적, 9사례), 말이 통함(전형적, 7사례), 편안함(전형적, 7사례), 위로 제공(전형적, 7사례), 자기를 드러냄(드문, 6사례), 믿고 의지함(드문, 3사례) 등 8개 범주가 도출되었다. 참여자들은 또래관계 친밀감을 일상적인 경험을 함께하고 자주 접촉하면서 소속감을 느끼고 자기 개방이나 원활한 의사소통, 위로나 지지를 통해 심리적 안정을 제공받는 의미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밀감의 의미 영역에서 함께함(일반적, 모든 사례)과 잦은 접촉(전형적, 10 사례)은 어려움의 극복 영역이나 긍정 경험 영역에서도 보이듯이 농촌지역 소규모 공동체라는 지역적 환경이 참여자들에게 또래관계에서 친밀감을 경험하는 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다양한 친밀감의 의미 중에서 함께하고 자주 접촉함을 친밀감의 의미로 꼽고 있는 것이 많은 사례에서 보이는 것은 농촌지역 소규모 공동체의 특성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 1) 함께함

참여자 모두가 일상생활에서 소소한 경험을 같이하는 것을 친밀한 것으로 반응을 보여 또래 친구와 함께하는 것 자체에 큰 의미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이 장난도 걸고 농담도 같이하고 PC방도 같이 가고 하는 거요.”(참여자 4)

“나하고 같은 것을 하는 친구가 있다는 생각을 하면 좋아요.”(참여자 9)

“게임도 하고 축구도 하고, 같이요.”(참여자 14)

## 2) 잦은 접촉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빈번한 만남이 이루어지는 관계를 친밀하게 느낀다고 반응하였다.

“수업할 때는 떨어져 있어도 수업이 끝나고 쉬는 시간이 되면,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먼저 다가가서 얘기도 하고 그러는 거요.”(참여자 1)

“매일매일 친하고요.”(참여자 9)

## 3) 도와줌

학습이나 심리적인 고민 등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도와주는 것을 친밀한 것으로 반응하였다.

“(모르는 것 있을 때) 내가 물어보면 도와주는 친구예요.”(참여자 9)

“△△가 힘들 때 내가 도와주기도 했어요. △△이는 부정적인 타입이라 (내가)긍정적인 생각하라고 조언했어요. △△이가 고마워하고 좋아했어요. 말만 해주었을 뿐인데, 원래 친했었는데, 더 친해졌어요.”(참여자 13)

## 4) 말이 통함

상호작용을 하면서 원활하게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을 친밀하게 여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이 있으면 편하고 마음이 잘 맞고, 대화가 잘 되는 그런 상태요.”(참여자 2)

“사이좋고, 붙어 다니고, 말도 많이 하고, 자기 얘기를 서로하고, 잘 들어 주고, 뜻이 잘 통하는 거요.”(참여자 13)

### 5) 편안함

함께 해도 심리적으로 부담감이 적고 서로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관계를 친밀하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냥 있을 때 웃고, 싸우기도 하고, 싸워도 금방 다시 화해하는 거요. 내 친구 ◇◇와 친하게 장난치고, 밥 먹으로 가고, PC방도 가고, 게임에서도 만나고요.”(참여자 4)

“서로 이해하고 장난치는 사람.”(참여자 6)

### 6) 위로 제공

심리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위안과 지지를 제공하는 것을 친밀한 것으로 느낀다고 반응하였다.

“울 때는 달래주고, 친구가 부를 때는 가보고, 무슨 일 있으면 이유를 말하고.”(참여자 6)

“친구들하고 트러블 있을 때 들어주고, 감싸주고 그래요.”(참여자 4)

### 7) 자기를 드러냄

갈등이나 비밀 등을 안전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을 친밀한 것으로 반응하였다.

“서로 비밀 이야기도 하고, 진심을 담은 이야기도 하고…….”(참여자 5)

“고민도 말하고, 그냥 친하게 지내요. ○○한테는 거의 다 말해요. 엄마, 아빠랑 스트레스가 있거나 갈등이 있을 때 말하고, 이성 친구에 대해서도 말해요.”(참여자 8)

### 8) 믿고 의지함

서로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친밀하게 여기고 있는 것으로 반응을 보였다.

“서로 의지하면서 서로 믿는 거요. 놀러 가면, 같이 가자고 연락하고, 돈 없다면 대주겠다고 오라고 하는 친구요.”(참여자 5)

“믿는 거죠, 신뢰할 만한 친구.”(참여자 13)

## 5 필요한 도움

필요한 도움 영역에서는 친구나 교사 지지(전형적, 11사례), 인식의 변화(전형적, 8사례), 교육이나 상담이 필요함(전형적, 8사례), 접촉 기회 제공(드문, 5사례), 당당한 태도 필요(드문, 2사례), 등 5개 범주가 도출되었다. 이 영역은 어려움이나 어려움을 극복하는 영역과 연관되어 나타났는데, 참여자가 겪는 심리적 위축, 편견이나 차별 경험, 소수자로서의 소외감 등을 극복하기 위해 다문화가정 청소년에 대한 인식 태도의 개선과 교육이나 상담을 원했고, 친구와 교사 지지, 접촉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반응을 나타냈다. 소수의 사례이기는 하지만, 다문화가정 청소년 자신들 스스로도 자신의 입장을 당당하게 드러낼 필요가 있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하였다.

### 1) 친구나 교사 지지

또래관계 친밀감을 발전시키는데 친구의 지지나 도움을 원했고, 또래 친구와 원만하게 지내는데 교사의 지지나 적절한 역할이 중요하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선생님들은 부모님이 외국인이라는 것을 대 놓고 말하면 아이들이 기피할 수도 있고 하니 그것은 말하지 말고, 다른 친구들과 잘 어울릴 수 있도록 ‘이 친구랑 같이 해라’하면서 조심했음 좋겠어요.”(참여자 4)

“옆에서 친구들이 따뜻하게 해주면 좋을 거 같아요.”(참여자 10)

“친구들이 도와주면 돼요. 같이 놀고, 어울릴 수 있도록 도와주고.”(참여자 14)

### 2) 인식의 변화

엄마가 외국인, 발음이 이상함, 키가 작음 등을 이유로 편견이나 차별하는 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친척 중 필리핀 가정 다문화 친척이 있는데, 그리고 드라마도 봤는데, 그런 것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학부모 회의에 참여했는데 엄마 발음이 이상하다고 그랬대요. 그런 것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 사람도 영어를 하면 발음이 이상하잖아요. 우리나라 국민들은 이기적인 것 같아요. 영어 발음하면 어색하게 그러던데, 우리나라 말 못하는 건 안 좋게 보는 것 같아요. 안그랬음 좋겠어요.”(참여자 1)

“국가에서 경제적 지원이 늘어나는 것 같기는 하는데요, 인식은 불편해 하는 것 같아요. 제 경우에 내 앞에서는 안 그래도 뒤에서 수군수군 하는 것을 들었어요. 다른 친구들이 누가 너한테 그러더라 말해주기도 하구요. 친구들끼리 그런 거 있잖아요. 중간에서.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참여자 2)

“애들이 놀리지 않고, 엄마가 외국인 애들을 왕따 같은 것 시키지 않고 잘 대해주었으면 좋겠어요.”(참여자 3)

### 3) 교육이나 상담이 필요함

또래 친구와 친밀하게 지내는데 어려움을 겪는 친구나 주는 친구에게 원만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는 교육과 자신을 탐색하고 도와줄 수 있는 상담이 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선생님들이 애들이 놀리거나 왕따시킬 때 잘 지도 해주었으면 좋겠어요. 애들이랑 친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었으면 좋겠어요.”(참여자 3)

“다문화교육 같은 걸 많이 시켜서 이해를 시켜주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참여자 5)

“문제 있는 친구들을 도와주기 위해 미술치료 같은 거, 약으로 말고 행동적으로 하는 걸로요.”(참여자 9)

“상담이 필요해요. 그 아이를 알 수 있게.”(참여자 13)

### 4) 접촉의 기회 제공

또래 친구와 친밀하게 지낼 수 있도록 접촉의 기회를 제공할 것을 원했고, 다문화가정 청소년이 어려움 없이 자연스럽게 또래 친구와 어울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일단 자기랑 피부색 다른 친구들은 비슷한 친구들 만나게 해서 놀게 하고, 그 다음으로 다른 피부색 친구들하고 어울리게 하는 것도 방법인 듯해요.”(참여자 4)

“친구들과 함께 하는 활동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참여자 8)

“그 학생이 좋아하는 거를 만들어주고 어울릴 시간들을 만들어주고”(참여자 11)

### 5) 당당한 태도 필요

한 사례에서 나온 것이기는 하지만, 참여자 자신도 심리적으로 위축되지 않고 다문화가정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당당하게 드러낼 필요가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같은 처지에 있는 친구들이 자신의 처지를 당당하게 드러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아서요.”(참여자 2)

## 논 의

본 연구의 목적은 농촌지역 다문화가정 청소년이 또래관계에서 친밀감을 어떻게 경험하는지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합의적 질적연구법(CQR)으로 국내에서 출생하여 농촌 지역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가정 청소년 14명을 심층 면접하여 그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5개의 영역과 35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본 연구는 우리 사회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고등학교에 진학하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수가 증가하기 시작하는 시기에 학교적응의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인 또래관계 친밀감 경험에 초점을 두고 보다 심층적으로 탐색하였다는 것과 전체 학년 학생수가 20명 이하인 농촌지역 소규모 학교에 재학하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또래관계 친밀감 경험을 탐색하여 이들에 대한 이해를 제공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특히 다문화가정 자녀라 하더라도 국내 출생 자녀, 외국인 자녀 등 다문화 구성 형태에 따라 생태학적 특성, 문화 경험, 교육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부적응 요인이 다르고, 따라서 다문화가정 청소년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제안(김정민, 2014)에 따른 연구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다만, 중·고등학교에 진입한 다문화가정 청소년이 아직은 소수이기 때문에 자발적 참여자를 구하기 어려운 점과 지역적 한계로 인해 부모의 국적을 다양하게 표집하지 못한 제한점이 있다. 또한 합의적 질적연구법(CQR)을 사용하여 농촌지역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또래관계 친밀감에 대한 특성을 밝히는데 주력한 관계로 또래관계 친밀감 형성과정의 전체적인 맥락을 밝히는데 까지 이르지 못한 점도 제한점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나타난 바에 따르면, 농촌지역 다문화가정 청소년이 또래관계에서 친밀감을 형성하는데 겪는 방해나 어려움은 두 가지 측면으로 나뉘볼 수 있다. 하나는 심리적 위축(전형적), 의견 충돌로 인한 다툼(전형적), 놀림이나 괴롭힘(전형적), 접촉 시간의 부족(드문) 등의 일반가정 청소년에게서도 보이는 측면이고, 다른 하나는 소수자로서의 소외감(전형적)이나 편견과 차별 경험(드문), 외국인 엄마(드문)로 인해 겪는 어려움 등으로 다문화가정 청소년이기 때문에 나타난 부분이다. 심리적 위축이나 놀림, 괴롭힘도 개인의 성격적 측면 외에 외모의 차이나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경험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것은 외모의 차이, 외국인 부모, 친밀감의 한계 등과 같은 또래 친구 요인이 다문화가정 초등학생의 학교적응과정 중심 현상인 '위축감'을 주는 요인 중의 하나라고 밝힌 한정애(2010)의 연구 결과와 일맥상통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또래 집단에 대한 소속감의 부재가 중도 입국한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사회·문화 적응과정 중심 현상인 '소외감'을 주는 요인 중에 하나라고 밝힌 우현정(2013)과 한은진(2012)의 연구와도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들 연구에서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사회·문화 적응과정에서 겪는 중심현상으로 '소외감'이 부각된 것은 중도 입국한 다문화가정 청소년

이 이미 형성된 또래관계 안으로 진입하기를 두려워하고 어려워하는 것과 관련 있다고 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인 농촌지역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은 중도 입국한 다문화가정 청소년들과 달리 대부분 국내에서 출생하여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과정 까지 함께 하는 경험을 하였기 때문에 중도 입국한 다문화가정 청소년들보다 또래관계에서 외모 차이나 문화적 이질감 등 다문화적 특성과 관련된 어려움을 덜 경험하였고, 경험하였다더라도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때의 경험을 회고하는 경향이 있었다(참여자1, 참여자3, 참여자4). 농촌지역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정행준(2011)의 연구에서 다문화가정 아동이 자신의 외모에 대해 부정적인 자아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한 것과 달리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다문화적 특성과 관련된 어려움을 덜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이들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진학하는 과정에서의 심리적 성숙에 따른 수용(참여자 7, 참여자 8) 또는 시·공간적으로 같이 있는 기회가 많은 소규모 농촌지역의 환경적 특성(참여자 3, 참여자 7) 등이 긍정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방해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농촌지역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은 먼저 다가가는 적극성(전형적), 긍정적 해해석과 강점에 주의를 기울이는 긍정성(전형적), 자기 수용(전형적) 등 개인 내적 자원을 활용하기도 하고, 이와 함께 친구나 교사의 지지나(전형적), 농촌지역의 소규모 공동체(전형적)를 중심으로 자주 함께하면서(전형적) 또래관계에서 생기는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지역의 소규모 공동체 문화는 학원이나 게임 등으로 개인적인 시간을 많이 보내는 도시지역 청소년보다 시·공간적으로 또래 친구나 교사와 함께 할 기회를 많이 제공하였고, 이것은 일반 가정 청소년과 외모나 문화적 배경이 다른 이들이 소수자로서 겪을 수 있는 또래관계에서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문화가정 학생뿐만 아니라 일반가정 학생들의 사회성 발달에서도 친구나 교사와의 접촉 빈도가 매우 중요한 요인임을 시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시골학교 다니다 보니까 쪽 연결돼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참여자 13).”라고 한 사례에서처럼 농촌지역 다문화가정 청소년이 학교적응을 원활하게 하는데도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소규모 학교이기에 가능한 “엄마가 학교에 오셔서 필리핀 요리를 하고 그랬어요. 엄마도 기분도 좋아졌고, 재미있다고 하셨어요. 다른 기회가 있으면 또 하고 싶다고 했어요(참여자 3).”와 같은 가족 구성원도 참여하는 교육 서비스 경험을 하면서 학생과 학부모 모두 당당해지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친구나 교사 지지가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학교적응 유연성을 높인다는 박순희(2009), 안은미(2007), 그리고 임선모(2012)의 연구 결과를 지지하는 것이고, 다문화가정 청소년이 의지라는 내적 자원을 활용하고 자기주변의 지지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위축감’을 벗어나려 한다는 한정애(2010)의 연구와 맥을 같이 하는 것이기도 하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농촌 지역 공동체 문화가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또래관계나 학교적응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기여하고 있음은 매우 주목할 만한 사실로서 다른 연구들과 차별화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어려움의 극복 영역에



서 “장난만 치는 게 아니라 할 것이 없을 때는 산에도 가요. 놀래켜 주구, 도망치기도 하고, 주말마다 같이 다녀요(참여자 7).”와 같은 자주 함께함이나 “(선생님이)상담도 해주고, 친구들과하고 갈등을 깔끔하게 처리해주었어요(참여자 13).”와 같은 친구, 교사의 위로나 지지는 도시 지역의 일반 가정 청소년이나 다른 지역적 환경을 가진 다문화가정 청소년보다 소규모 농촌지역 다문화가정 청소년에게 제공될 기회가 많다.

농촌지역 다문화가정 청소년은 또래관계에서 친밀감을 형성하는 데 방해나 어려움을 극복하고, 의미 있는 긍정적 경험을 통해 또래관계에서 친밀하다는 의미를 일상의 경험을 함께하고(일반적), 자주 접촉(전형적)하면서 소속감을 느끼며, 자기 개방(드문)이나 원활한 의사소통(전형적), 위로나 지지(전형적)를 통해 편안함을 제공(전형적)받고, 도움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Sternberg(1986)가 제시한 가깝고 편안한 느낌, 서로 잘 이해함, 함께 공유함, 원활한 의사소통, 긍정적 지지 등과 같은 친밀감 요인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함께함과 잦은 접촉, 위로나 지지 등이 다른 연구에서 보이는 친밀감 요인보다 많은 참여자들에게서 나타난 것은 소규모 농촌지역의 특성과 관련이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서로 도움을 제공하는 것도 또래관계에서 친밀하다는 것으로 여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친구들이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다 모여서 기부해 줄 수도 있을 것이고...(참여자 3).”에서처럼 소수자로서 학습적 부분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면에서 친구들의 지지를 기대하고, 그러한 믿음을 친밀하다고 여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Sternberg(1986)나 기존의 다른 연구들과 다른 결과이다. 자기 노출이나 자기 개방이 친밀감의 중요한 요인임을 제시한 연구들(Buhrmester & Furman, 1987; Youniss, 1980; Youniss & Smollar, 1985; 윤미혜, 신희천, 2009; 최지영, 최연실, 2010)과 구별된다.

다문화가정 청소년이 또래관계 친밀감을 형성하는데 필요하다고 생각한 도움으로는 어려움이나 어려움을 극복하는 영역과 연관되어 나타났는데, 참여자가 겪는 심리적 위축, 편견이나 차별 경험, 소수자로서의 소외감 등을 극복하기 위해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인식 태도의 개선(전형적)과 교육이나 상담(전형적)을 원했고, 친구와 교사지지(전형적), 접촉 기회를 제공(드문)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소수의 사례이기는 하지만, 다문화가정 자녀 자신들 스스로도 자신의 입장을 당당하게 드러낼 필요가 있다는 반응(드문)을 보이기도 하였다. 농촌지역 다문화가정 청소년은 자신이 또래관계에서 생기는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또래 친구나 교사의 지지, 교사의 상담이나 교육 공동체의 다문화 이해 교육 등이 도움이 되었음을 경험하였고, 이러한 경험들이 또래관계 친밀감의 발전에 지속적으로 필요한 자원이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보면, 함께할 기회가 많은 농촌지역의 소규모 공동체 문화가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친밀한 또래관계 형성에 도움을 주고 있으며, 외모 차이나 다른 문화적 배경으로

인해 또래관계에서 생기는 어려움을 극복하는 자원으로서 일상의 많은 시간을 함께 하는 친구, 교사, 학교 등의 사회적 지지 체계가 활용되고 있었다. 이러한 친밀한 또래관계 경험은 이들의 학교적응을 용이하게 하는데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농촌지역 다문화가정 청소년을 포함한 모든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학교적응을 돕기 위한 교육 및 상담 개입 전략에 대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 공동체를 활용한 사업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농촌지역 교육 공동체에서는 구성원이 소규모이기 때문에 이론 교육이나 체험 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다문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 농촌지역 다문화청소년은 다른 나라 음식 만들거나, 외국인이 직접 와서 교육을 한 경우에 인상이 깊었다고 반응하였다. 이러한 경험은 자신을 또래 친구에게 알리고, 특히 자신의 부모가 직접 참여하여 요리 등 체험활동을 한 경우, 또래 친구와 친밀해지는 계기도 되고, 자존감도 높아졌다는 반응을 하였다. 소규모이기 때문에 전교생 모두가 참여하기 쉬운 교육 공동체를 활용한 교육이나 체험활동은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는 계기를 제공하여 또래관계 친밀감을 발전시키고 학교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서 농촌지역에서 발견되는 이러한 공동체적 특성은 경쟁의 패러다임 속에서 갈수록 개인주의 문화가 강해지는 도시지역 청소년들의 건강한 또래관계 형성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겠다.

둘째, 사회적 지지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농촌지역 다문화가정 청소년은 또래관계에서 생기는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적극적으로 다가가거나 자신의 강점에 주의를 기울이는 등 긍정적인 개인 내적 자원을 활용하기도 하지만, 친구나 교사 지지, 함께하는 문화 등 사회적 지지 체계를 자원으로 활용하였다. 외모 차이나 다른 문화적 배경으로 또래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을 경우, 또래 친구가 자신의 처지를 수용해 주거나 긍정적으로 지지해 줄 때, 그리고 소수자로서 소외감을 겪거나 또래 친구와 갈등이 있을 경우, 교사가 공감해주고 적절한 도움을 줄 때 이들은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이들은 자신을 지지해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과 함께 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위안을 얻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또래상담이나 교사의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는 체제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 때 또래상담자나 교사들에게 문화적 유능성을 갖출 수 있도록 훈련과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다문화가정 청소년을 위한 학교적응 프로그램을 마련할 때 또래관계 친밀감을 높일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될 것이 요구된다. 청소년기는 인생의 어느 주기보다 또래집단이 중요하다. 또래집단과 자주 접촉하고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함으로써 서로를 이해하고 친밀감을 느끼게 되면 학교적응이 용이해질 것이다. 집단상담의 형태는 이 시기의 청소년들의 심리·사회적 발달에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비슷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또래 친구들끼리 어울리게 하고, 다음 단계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또래 친구와 어울리게 하는 것(참여자 4)도 방법일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농촌지역 다문화가정 청소년이 학교적응이나 또래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문화적 유능성을 가진 전문 상담가의 지원이 필요하다. 농촌지역 다문화가정 청소년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지역적으로도 상담기관이나 상담 정보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쉽게 상담을 요청하지 못할 수 있다. 상담이 이루어질 경우에도 청소년이기 때문에 겪는 보편적인 어려움과 다문화가정 청소년이기 때문에 겪는 특수한 어려움을 다루는데 유능감이 있는 상담자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문화적 유능성을 갖춘 상담자 양성과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 제도가 필요하다.

본 연구가 합의적 질적연구법(CQR)으로 농촌지역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또래관계 친밀감과 관련된 어려움과 극복 경험, 긍정 경험과 의미 등에서 나타난 특성을 탐색하는데 주안점을 두었기 때문에 추후 연구에서는 또래관계 친밀감 형성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맥락이나 유형을 살펴볼 것을 제안한다. 또, 연구 대상의 다양화라는 측면에서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이 경험하는 또래관계 친밀감, 일반가정 청소년이 경험하는 다문화가정 청소년과의 또래관계 친밀감을 탐색해볼 것을 제안한다.

## 참고문헌

- 교육부(2013). **교육통계서비스**. 교육부.
- 김정민(2014). 중도입국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다문화 대안학교 학습경험 탐색. 박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 김희경(2012). 다문화가정 중학생의 학교적응요인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 박순희(2009). 다문화가족 자녀의 적응유연성 연구. 박사학위논문, 동신대학교.
- 보건복지부(2008).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안경숙(2001). 초등학생의 친한 친구 사귀기 과정: 근거 이론적 접근 방법으로. 박사학위논문, 서울여자대학교.
- 안은미(2007). 농어촌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양미진, 고흥월, 김영화, 이동훈(2012). 중도입국 다문화가정 청소년 이주 후 적응에 관한 질적 연구. **청소년상담연구**, 20(2), 87-114.
- 양미진, 이동훈, 고흥월, 김영하, 남현주(2012). 현장전문가가 지각한 다문화 청소년 상담의 특성에 관한 질적분석. **상담학연구**, 13(3), 1181-1209.
- 양순미(2007). 농촌지역 다문화가족의 초등학생들의 학교생활적응과 가족생활행복에 작용하는 요인. **한국심리학회지**, 12(4), 550-576.
- 우현정(2013).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사회문화적 적응과정에 관한 근거이론적 접근.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 윤미혜, 신희천(2009). 일상사건의 공유를 통한 부부의 친밀감 발달과정: 지각된 배우자 반응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3(1), 17-32.
- 임선모(2012).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학교적응유연성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 논문, 조선대학교.
- 정지윤, 문성호(2011). 다문화청소년의 학교생활 경험에 관한 질적연구. **청소년학연구**, 18(8), 265-289.
- 정행준(2011). 농촌지역 다문화가정 아동의 교육환경, 자아존중감, 학교생활적응 관계: 일반가정 아동과의 비교. 박사학위논문, 목포대학교.
- 조영달 외(2006). **다문화가정의 교육 실태 조사**. 교육인적자원부.
- 지승희(2000). 회피형 내담자가 지각하는 상담과정 및 변화 요인 연구: 애착이론적 조망에서.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최지영, 최연실(2010). 성인초기 미혼남녀의 자아분화와 자기개방이 이성과의 친밀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생활과학회지**, 19, 227-244.
- 최호선(2011).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적응과정에 대한 질적연구: 근거이론 접근. 석사학위논문, 조선대학교.
- 한정애(2010). 다문화가정 초등학생의 학교적응과정분석. 박사학위논문, 경성대학교.
- 하혜숙(2011).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교사의 편견 분석 연구. **상담학연구**, 12(6), 2065-2083.
- 한은진(2012). 한국사회 문화적응경험을 통한 적응과정 유형분석. 박사학위논문, 원광대학교.
- 황정은, 이훈희(2013). 학교생활에 대한 다문화가정 학생의 인식유형 q방법론. **한국복지학**, 6(40), 225-249.
- Buhrmester, D., & Furman, W. (1987). The development of companionship and intimacy. *Child Development*, Vol. 58(4), 1104-13.
- Creswell, J. W. (2007).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choosing among five approaches*. Thousand Oaks, CA: Sage
- Erikson, E. (1968). *Identity: Youth and crisis*. New York: Norton.
- Elliot, E. W., & Peshkin, A. (1989). *Qualitative Inquiry in education: The continuing debate*(Eds.). Teachers College Press.
- Hill, C. E., Knox, S., Thompson, B. J., Williams, E. N., Hess, S. A., & Ladany, N. (2005). 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An updat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2(2), 196-205.
- Hill, C. E., Thomson, B. J., & Williams, E. W. (1997). A guide to conducting 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The Counseling Psychologist*, 25(4), 517-572.
- Laurenceau, J. P., Barrett, L. F., & Rovine, M. J.(2005). The Interpersonal Process Model of Intimacy in marriage: a daily diary and multilevel modeling approach.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9(2), 314-323
- Mitchell, A. E., Castellani, A. M., Herrington, R. L., Joseph, J. L., Doss, B. D., & Snyder, D. K.(2008). Predictors of intimacy in couples' discussions of relationship injuries: An observational study.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22(1), 21-29.
- Prinstein, M. J., Borelli, J. L., Cheah, C. S. L., Simon, V. A., & Aikins, J. W. (2005). Adolescent girls' interpersonal vulnerability to depressive symptoms: a longitudinal examination of reassuranceseeing and peer relationship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14, 676-688.
- Reis, H. T., & Shaver, P. (1988). Intimacy as an interpersonal process. In S. Duck(Ed.), *Handbook of personal Relationships*. Chichester, England: Wiley.

- Selfhout, M. H., Branje, S. J., & Meeus, W. H. (2009). Developmental Trajectories of Perceived Friendship Intimacy, Constructive Problem Solving, and Depression from Early to Late Adolescence. *J Abnormal Child Psychol*, 37, 251-264
- Seidman, E. (2006). *Interviewing as qualitative research: a guide for researchers in education and the social sciences*. New York: Teachers College Press.
- Spradley, J. P. (1979). *The ethnographic interview*.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 Strauss, A., & Corbin, j. (1990).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Grounded theory procedures and techniques*. Newbury Park, CA: Sage.
- Sternberg, R. J. (1986). A triangular theory of love. *Psychological Review*, 93, 119-135.
- Sullivan, H. (1953). *The interpersonal theory of psychiatry*. New York: Norton.
- Shulman, S., & Knafo, D. (1997). Balancing closeness and individuality in adolescent close relationships.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21, 687-702.
- Shulman, S., Laursen, B., Kalman, Z., & Karpovsky, S. (1997). Adolescent intimacy revisited.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6, 597-617.
- Shulman, S., & Laursen, B. (2002). Adolescent perceptions of conflict in interdependent and disengaged friendships.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12, 353-372.
- Youniss, J. (1980). *Parents and peer in social development A Sullivan-Piaget perspective*.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Youniss, J., & Smollar, J. (1985). *Adolescent relation with mothers, fathers, and friend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논문접수 2014년 2월 11일 / 1차 심사 2014년 3월 14일 / 2차 심사 2014년 5월 13일 / 게재승인 2014년 5월 27일

\* 김건숙: 전주대학교 상담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현재 동 대학교에서 시간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논문으로는 '상담전공 만학도의 학부과정 경험연구'가 있다.

\* E-mail: kks7352@hanmail.net

\* 최은미: 전주대학교 상담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현재 동 대학교에서 시간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논문으로는 '집단상담 사전동의 형태에 따른 사용실태 비교 연구' 등이 있다.

\* E-mail: eunmi0417@hanmail.net

\* 이호준: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교육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한국청소년상담원 상담교수를 역임하였으며, 현재는 전주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논문으로는 '부모교육 평가척도 개발: 참가자 관점의 적용', '다문화가정 한국인 남편의 결혼적용 과정' 등이 있다.

\* E-mail: hjlee@jj.ac.kr

## Abstract

## A Qualitative Study on Intimacy of Peer Relationship Experience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in Rural Areas

Kim, Kun-Suk\*  
Choi, Eun-Mi\*\*  
Lee, Ho-Joo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how multicultural adolescents experienced intimacy of peer relationship. The in-depth interviews using 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CQR) of 14 multicultural adolescents attending middle and high schools in rural area were analyzed. Finally according to the analysis, 5 domains such as disturbance or difficulty, overcoming difficulties, experiencing affirmation, meaning of intimacy, necessary assistance and 35 categories were found. Multicultural adolescents in rural areas had meaningful experience through overcoming difficulties such as appearance difference, feeling of alienation as minority which disturbed the intimacy of peer relationship. Through these experiences they considered the intimacy of peer relationship as doing together, frequent contact, assistance, speaking the same language, comfort, supplying consolation, exposing oneself, believing and depending. The result of this study suggested that small community culture in rural area where they could have much opportunity to share their life helped multicultural adolescents to form the intimacy of peer relationship. Based on this result, suggestions that was a strategy of education and counselling to assist multicultural adolescents adapt to school life were proposed.

Key words: multicultural adolescents, intimacy of peer relationship, qualitative research, adaption to school

\* First author, Ph.D. Candidate, Jeonju University

\*\* Ph.D. Candidate, Jeonju University

\*\*\* Corresponding author, Professor, Jeonju University